

러시아에서의 한국고전문학

-러시아어로 번역의 역사에 관하여*-

최 인 나

이 글은 한국고전문학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고전문학의 러시아번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러시아에서 한국 문학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이었다. 연구 활동의 중심지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였으며, 현대 문학 연구 활동은 주로 모스크바에 집중되었고, 레닌그라드에서는 전통 문학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잘 알려져 있는 A. 홀로도비치 교수는 훌륭한 언어학자이자 한국학자, 일본학자로 그의 제자들 중에서 레닌그라드파를 대표하는 한국어 번역가들(A. G. 바셀리에브, 임수, M. I. 니끼찌나, G. E. 라치코브, A. F. 드로제비치)이 나왔다.

러시아에서 한국 문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 이 두 방향은 현재에도 계속 존재하는 데, 그 중 하나는 연구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에게 한국 문학을 보급하는 활동이었다. 연구 활동은 학위 논문을 쓰는 일,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학술

*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로의 번역의 역사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신, 러시아 학술 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 전임연구원으로 계시는 A.F.드로제비치 교수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동양학부 부교수로 계시는 G.E.라치코브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저서를 내는 일, 국내 및 국외의 학술회의에서 연구 발표를 하는 일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1950~1960년대는 한국 고전 작품 중 최초로 번역된 것이 발간되던 시기이다. 여기에는 “한국 중편소설 선집”(모스크바, 1954). 여기에 “장끼전”(임수 역), “홍길동전”(M.I. 니끼찌나 역), “춘향전”(A.F. 드로제비치 역)의 세 작품의 번역본이 포함되어 있음)과 A. A. 아흐마토프 시인의 번역으로 나온 “한국 고전시가 선집”(모스크바, 1956)–고대 시가와 3행으로 된 시조들–이 있었다. 이 선집들의 머리말을 A. A. 홀로도비치가 썼다. 1960년대에는 한국 문학 연구에서 새로운 경향들이 나타났다. 논문 및 학술 저서의 저자들은 작품과 장르를 “내부로부터” 고찰하려고 시도했다. 그 어떤 문학의 현상이, 세계 문학 발전 과정과 상관없이, 또한 전통적 문학 연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던 장르와 시대 구분의 틀과는 상관없이, 그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D. D. 옐리씨예브, M. I. 니끼찌나, A. F. 드로제비치의 저작들에서 그러했다. 1970년대에는 번역 활동의 새로운 단계가 열렸다. 전통 문학을 번역하던 이들이 한문으로 쓰인 작품들에 관심을 가졌다. 1970년에 임제(1549~1587)의 소설들과 패관소설집(15~17세기)에서 발췌된 단편 소설들을 번역한 작품 선집 “패관소설”(D.D. 옐리씨예브 역); “화사”(A. F. 드로제비치 역); “수성지”(G.E. 라치꼬브 역), “자라국”(레닌 그라드, 1970), 그리고 김시습(1435~1493)의 단편집인 “금오신화”(V. 쏘로킨 역, 모스크바, 1973)가 나온다. 고전 시가 번역 작품집들은 정철의 외로운 학(모스크바, 1975); 눈 속의 대. 8~19세기 한국 서정시(모스크바, 1978)등이 다수 출판된다. 한문으로 된 시가와 산문의 번역본이 “세계 문학 도서관”이라는 시리즈로 발간된다(김부식 편. “삼국사기”, 일연 편. “삼국유사”, “동문선”, “용재총화”, 임제 편 허균 편 “춘향전”(D.D. 옐리씨예브, G.E. 라치꼬브, M. I. 니끼찌나, A. F. 드로제비치, L.R. 끈제비치 역)).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기뻐리온’ 출판사가 ‘한국 문학의 금자

탐'이라는 명칭으로 극동의 산문 및 운문 번역 작품들을 속속 발행할 예정이다. 전통 문학을 구성하는 주요 작품들, 또한 대한민국 최고 유명 작가들의 현대 산문 및 운문의 발행이 계획되고 있다. 현재까지 고전문학에 대한 번역은 이루어져왔으나 패설, 전기, 고전소설, 시조, 가사 등은 재번역될 필요가 있으며 중요저작들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핵심 단어: 한국고전문학 번역, 소설번역, 시가번역, 러시아어 번역, 해외번역

I. 머리말

이 글에서 필자가 추구하는 것은 한국고전문학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역사를 소개하며, 이 작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소개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지식 증가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은, 어떤 문학 작품을 번역할 것인지를 선별하는 작업이다. 여러 가지 문학 연구 방법론들 중 한 가지가 우세한 입장을 점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현재까지 그 각 시기에 러시아어로 번역된 여러 한국 문학 작품들의 시기별 성향에 대한 언급이 가능하다.

러시아에서 한국학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이다. 1897년 동양 문학 학부에 속한 중국 및 만주 문학 학과에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었다. 그때는 한국 대사관 멤버들이 교사로 활동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선택된 글들 중에는 19세기에 목판 인쇄술을 통해 출판된 한국 문학 작품들도 있었다. 그러나 문학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 문학은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당시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몇몇 간행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손꼽을 만한 것이 러시아 재무부에 의해 편집된 ‘한국에 대한 기록’이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제2부에 문학사에 대한 간략한 개관이 실렸다.¹⁾ 이는 한문으로 쓰인 한국 전통 문학에서 시작하여 한글로 쓰인 산문 및 운문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는 러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간행물이었다. 이 책에서는 한글로 쓰인 문학을 서민 문학이라 칭했다(19세기 시가 집 “남훈대평가”에서 번역의 예가 들어 있기도 했다). 이 개관의 끝 부분에는 한국어로 된 기독교 문학 작품들 및 최초의 한국어 정기 간행물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한국에 대한 기록』 이후로,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 민담(옛날 이야기)이 등장한다. 이는 1898년 한국에 탐사 여행을 다녀온 N. G. 가린 미하일로브스키가 쓴 것이다.²⁾

II. 러시아에서 한국 고전문학 연구와 번역의 역사

러시아에서 한국 문학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다. 연구 활동의 중심지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였으며, 현대 문학 연구 활동은 주로 모스크바에 집중되었고, 레닌그라드에서는 전통 문학에 주요 관심이 두어졌다. 한국 문학과 관

1) 『한국에 대한 기록』, 1900. 상트페테르부르크. 제2부.

2) 가린 미하일로브스키 N. G. 1950. 『세계 일주 여행 일지에서 뽑은 글』. 모스크바.

런하여 이루어진 활동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 이 두 방향은 현재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중 하나는 연구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에게 한국 문학을 보급하는 활동이었다. 연구 활동은 학위 논문을 쓰는 일, 논설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학술 서적을 내는 일, 국내 및 국외의 학술 회의에서 연구 발표를 하는 일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보급 활동은 백과사전에 들어갈 내용을 쓰는 일, 예술로서의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번역본에 대한 머리말을 쓰는 일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머리말을 읽는 독자는, 한국 문학의 추이가 갖는 특성에 대한, 또한 일정한(독자가 구해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이 한국 문학의 역사 속에서 점하는 위치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1950년대에 한국 문학에 종사한 이들은, 그들의 활동이 순수 연구 활동이었든 보급 활동이었든,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미 번역되어 있던 작품도 없었고, 연구 논문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학 학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1950~1960년대는 한국 고전 작품 중 최초로 번역된 것이 발간되던 시기이다. 이는 『한국 중편소설 선집』³⁾(여기에 『장끼전』(임수역), 『홍길동전』(M.I. 니끼찌나 역), 『춘향전』(A.F. 프로제비치 역)의 세 작품의 번역본이 포함되어 있음)과 A. A. 아흐마토프 시인의 번역으로 나온 『한국 고전시가 선집』⁴⁾(고대 시가와 3행으로 된 시조들)이었다. 이 선집들의 머리말을 A. A. 홀로도비치 학자가 썼다.

그러한 번역의 전제가 된 것은 주로 40년대 말~50년대에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에서 이루어진 고대 한국어 연구이며, 그러한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이 대학교에 훌륭한 언어학자이자 한국학

3) 『한국 중편소설 선집』, 1954. 모스크바.

4) 『한국 고전시가 선집』, 1956. 모스크바.

자요 일본학자인 A. A. 홀로도비치 교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들 중에서 레닌그라드파를 대표하는 한국어 번역가들(A. G. 바실리에브, 임수, M. I. 니끼찌나, G. E. 라치꼬브, A. F. 프로제비치)이 나왔다. 그 후 60~70년대에 발행된 산문집들에, ‘전(傳)’자로 끝나는 중편 소설 15편의 번역이 실렸다. 한국어로 쓰인 소설들이 D. D. 엘리쎬예브의 번역으로 소개되었다. 1959년에 출판된 ‘한국 소설’이라는 소설집에서 번역자는 러시아 독자들에게 영국의 한국학자인 아스톤이 갖고 있는 필사본 컬렉션에서 선별한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이 컬렉션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필사본 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 소설들을 기록한 것은 김재국으로서, 그는 아스톤의 한국인 스승이다. 이 소설들은 아스톤에 대한 한국어 구어(口語) 교육에 사용되었음이 자명하다(2004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 소설집(김재국 편 D. D. 엘리쎬예브 역)’이라는 명칭의 새 문집이 나왔다).

1960년대에 한국 문학 연구에서 새로운 경향들이 나타났다. 논문 및 학술 서적의 저자들은 작품과 장르를 “내부로부터” 고찰하려고 시도한다. 그 어떤 문학의 현상이, 세계 문학 발전 과정과 상관없이, 또한 전통적 문학 연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던 장르와 시대 구분의 틀과는 상관없이, 그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D. D. 엘리쎬예브, M. I. 니끼찌나, A. F. 프로제비치의 저작들인데, 전통 문학 연구와 관련된 특히 러시아 학술 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 필사본 문고에 있는 고서들의 발표와 관련된 저작들이다. D. D. 엘리쎬예브가 연구한 “백련초해”⁵⁾ “최충전”⁶⁾ “임장군전”⁷⁾ 임장군: “쌍천기봉”⁸⁾ “춘향

5) D. D. 엘리쎬예브. 1960. 『백련초해: 한국어 번역이 첨부된 서정시 선집』 원문 발행. 번역. 머리말. 모스크바.

6) D. D. 엘리쎬예브. 1971. 『최충전』 한글 필사본. 번역. 머리말. 주해. 모스크바.

전 권지단”⁹⁾이 그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고서들 자체의 독특성으로 인해 이를 규명하고 묘사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960년에 『춘향전: 중세 중편소설집』의 제목을 갖는 간행물이 발간되었는데 그것은 중편소설의 선집이다¹⁰⁾(“춘향전”(A.F. 프로제비치 역), “장끼전”(임수 역), “홍길동전”(M.I. 니끼찌나 역), “심청전”(G.E. 라치꼬브/임수 역), “전우치전”(G.E. 라치꼬브 역), “토끼전”(M. I. 니끼찌나 역), “사씨남정기”(G. 꾸지첸코 역) 등등).

개별적 문학 작품들에 대한 연구를 예로 삼아 문학의 특징들을 드러내는 방법이 많은 논문들과 초기의 학술 서적들에서 사용되었다. 극동 지방의 산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에 “패설 문학”이라는 명칭이 주어졌는데, 이러한 문학에 대하여 D. D. 엘리셰예브가 “한국 중세 패설 문학”이라는 학술 서적을 집필하였다.¹¹⁾ 그는 그러한 산문을, 별 상호 연관성도 없이 같은 선집에 들어가게 된 여러 장르의 글들(예술 작품들, 혹은 예술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글들)의 모음으로 인식한다. D. D. 엘리셰예브는 “패설 문학”이라는 명칭의 기원과, 이 문학이 한국에 확산되어 온 역사를 고찰한다. 그는 이 문학의 민족적 특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 속에서 개별적 작품들을 분별해 내고, 유럽의 장르 체계를 사용하여 이를 분류한다.

D. D. 엘리셰예브는 “한국 중세 단편 소설”이라는 책¹²⁾ 과 이를

- 7) D. D. 엘리셰예브. 1975. 『임장군전』. 목판 사본. 원문 발행. 한국어 번역. 머리말. 주해. 모스크바.
- 8) M. I. 니끼찌나. A. F. 프로제비치. 1962. 『쌍천기봉』 원문 발행. 번역. 머리말. 모스크바.
- 9) A. F. 프로제비치. 1968. 『춘향전 권지단』 목판 사본. 번역. 머리말. 주해. 모스크바.
- 10) A. F. 프로제비치. 1960. 『춘향전』, 중세 중편소설집. 모스크바.
- 11) D. D. 엘리셰예브. 1968. 『한국 중세 패설 문학(기원 및 장르와 관련된 문제들)』. 모스크바.
- 12) D. D. 엘리셰예브. 1977. 『한국 중세 단편 소설(장르의 진화)』. 모스크바.

기반으로 작성되어 심사를 통과한 박사(doctor of science) 학위 논문¹³⁾을 통해, 규모가 작은 산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다. 12세기 역사 서술 목적의 글들에서 시작하여 19세기 단편 소설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단편 소설 장르가 연구되었다. 이 저작에는 구성의 문제, 중국 단편 소설과의 연계 문제, 작품의 주제 구상 문제가 자세하게 고찰되어 있다. 연구 자료로서 사용된 것은 러시아 학술 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 필사본 분과에 소장되어 있는 김제국과 박정식의 진귀한 필사본 단편소설집들(19세기)이다.

문학 작품들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문학의 독특성을 보이려는 방법이 M. I. 니끼찌나와 A. F. 드로제비치의 저작인 『14세기 이전 한국 문학 역사 개관』¹⁴⁾에 쓰였다. 이 책에서는 전통 산문 및 전통 시가의 역사 중 처음 시기가 고찰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대 문헌은 역사를 기술하는 글들이다. 연구를 위해 2편의 고대 문헌이 취해졌으니, 김부식(1075~1151)이 집필한 공식적인 “표본적 역사”인 『삼국사기』와 불교의 지도자급 승려였던 일연(1206~1289)이 집필한 비공식적인 역사로서의 『삼국유사』가 그것이다. 이 역사 서술 문헌에는 사회에서 이름을 날린 인물들이나 유명한 불교 고행자들의 전기, 한국에 존재했던 왕국들을 수립한 자들에 대한 전설을 기록한 것, 향가의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 본 학술 서적에는 초기 문학의 이러한 현상들 각각에 대하여 해당 논문들이 실렸다. 예를 들어, 김부식의 “표본적 역사”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의 구조 및 그 묘사 원칙의 특성들이 고찰되었고, 불교 전기(傳記)의 특성이 보여졌고, 향가와 그 불교 의식(儀式)과의 연계가

13) D. D. 엘리제예브. 1979. 『한국 중세 단편 소설(장르의 진화)』. 어문학 박사(doctor of science) 학위 청구 논문 요약서. 모스크바.

14) M. I. 니끼찌나, A. F. 드로제비치. 1969. 『14세기 이전 한국 문학 역사 개관』. 모스크바.

연구되었고, 구비 문학에 해당하는 시가와 세속 시가의 모형들이 제시되었다. 한국에 존재했던 왕국들을 수립한 자들에 대한 전설로서 한국 및 중국의 역사 서술 문헌에 기록된 것들이 1960년대에 문학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한 구조적 방법을 통해 연구되었다.

전통 문학의 역사를 문학 자체의 내부적 특성(그 어떤 장르의 발생과 소멸, 인물 묘사의 원칙, 새로운 주제의 발생)에만 기인하여 각 시기별로 나누려는 시도이자 토의의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M. I. 니끼찌나와 A. F. 프로제비치의 「중세 한국 문학의 시대 구분」¹⁵⁾이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전통 문학의 시대 구분 원칙이 차후에, “세계문학사”의 한국 문학에 해당하는 항목의 기반에 놓이게 되었다. 이 한국 문학 항목을 작성한 것도 바로 같은 저자들이다.¹⁶⁾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아래와 같은 선집들이 나왔다: 김만중, 『구운몽』(A. 아르제미예바/G.E. 라치꼬브 역). 모스크바/레닌그라드, 1961; 『동문 단편소설』(D.D. 엘리제예브 역). 모스크바, 1963; 『청구야담』(A. 아르제미예바/G.E. 라치꼬브 역). 모스크바, 1966. 한국 시와 관련 된 번역은 1962년에 발간된 박인로의 시집이었다.¹⁷⁾

1970년대에 번역 활동의 새 단계가 열렸다. 전통 문학을 번역 하던 이들이 한문으로 쓰인 작품들에 관심을 갖는다. 1970년에 임제(1549~1587)의 소설들과 폐관소설집(15~17세기)에서 발췌된 단편 소설들을 번역한 작품 선집 (폐관소설(D.D. 엘리제예브 역); 『화사』(A. F. 프로제비치 역); 『수성지』(G.E. 라치꼬브 역)¹⁸⁾, 그리고 김시습(1435~1493)의 단편집인 『금오신화』(V.썸

15) M. I. 니끼찌나, A. F. 프로제비치. 1968. 중세 한국 문학의 시대 구분. 모스크바.

16) 『세계문학사』. 1984~1988. 제2~5권. 모스크바.

17) 박인로. 1962. 『오색의 구름』. 알마아타(M. I. 니끼찌나, L.R. 폰제비치, A.G. 조브티스 시인 역).

18) 『자라국』. 1970. 15~17세기 한국 단편 소설. 레닌그라드.

로깅 역)¹⁹⁾가 나온다. 고전 시가 번역 작품집들²⁰⁾이 다수 출판된다. 한문으로 된 시가와 산문의 번역본이 『세계 문학 도서관』이라는 시리즈로 발간된다(김부식 편. 『삼국사기』 일연 편. 『삼국유사』 『동문선』 『용재총화』 임제 편 허균 편 『춘향전』 (D.D. 엘리제예브, G.E. 라치코브, M. I. 니끼찌나, A. F. 프로제비치, L.R. 폰제비치 역)).²¹⁾

문화학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보다도 전통 문학과 신화를 연구하는 데에 주로 쓰인다. 이 접근 방법은 M. I. 니끼찌나와 A. F. 프로제비치가 쓴, 고문서 연구에 관한 논문들²²⁾에서, 또 한 다음과 같은 박사 학위 논문들에서 사용되었다.

- L. V. 쥐다노바. 최치원 의 시문학(9세기)²³⁾
- M. I. 니끼찌나. 의식(儀式)과 신화와의 연계 속에서 본 한국 고대 시가²⁴⁾
- A. F. 프로제비치. 한국 중세 장편 소설²⁵⁾

1975년에 A. F. 프로제비치의 저작 『한국 중세 중편 소설』²⁶⁾이 나오는데, 이는 한글로 쓰인 서민용 중편 소설로서 “전(傳)”이라는 말이 붙은 작품들의 구조를 연구하는 책이다. 여기서 사용한 연

19) 김시습. 1973. 『금오신화』. 모스크바.

20) 정철. 1975. 『외로운 학』. 모스크바; 『눈 속의 대』. 8~19세기 한국 서정시. 모스크바. 1978.

21) 『극동의 고전 산문』. 1975. 모스크바. 인도,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의 고전 시가. 모스크바. 1977.

22) 『한국의 문학』. 1980. 1945~1978년에 러시아어로 출판된 번역본과 비평서 목록. 제1판. 모스크바.

23) L. V. 쥐다노바. 1983. “최치원”의 시문학(9세기): 어문학 박사(candidate of science) 학위 청구 논문 요약서. 레닌그라드.

24) M. I. 니끼찌나. 1981. “의식(儀式)과 신화와의 연계 속에서 본 한국 고대 시가” 어문학 박사(doctor of science) 학위 청구 논문 요약서. 레닌그라드.

25) A. F. 프로제비치. 1983. “한국 중세 장편 소설” 어문학 박사(doctor of science) 학위 청구 논문 요약서. 레닌그라드.

26) A. F. 프로제비치. 1975. 『한국 중세 중편 소설』. 모스크바.

구 방법을 통해 중편 소설의 두 가지 타입을 분별해 낼 수 있었다 (구조적으로 볼 때 모든 작품들을 “두 가지의 중편 소설”로 묘사할 수 있었다). 이는 이루어지는 행위의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회적 중편 소설과 비사회적 중편 소설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설 주인공들은 사회적인 인물들에 속한다(다섯 종류의 유교적 행동 방식에 해당한다). 이에 있어 긍정적 이미지의 인물들은 우주적 조화와 사회적 조화에 부합하며, 부정적 이미지의 인물들은 우주의 질서를 위반하는 자들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소설은 “주인공과 적”이라는 개인적 대립 관계가 아닌 “조화와 혼돈”이라는 우주적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학술 서적에서는 소설의 언어적 특성이 고찰되었는데, 이는 한 전형의 인물들을 한 가지의 표현 및 상징으로써 묘사하는 경향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 및 상징이란, 문학 전통에 의해 개발되고 신화적 연상 작용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저작에서 중편 소설은 전통 한국의 문화 관념이 실현되는 현상으로서 소개되어 있다.

한국 문화의 기저에 대한 연구가 M. I. 니끼찌나의 저서 『의식(儀式)과 신화와의 연계 속에서 본 한국 고대 시가』²⁷⁾를 통해 이루어졌다. 6~9세기에 신라에서 만들어져 역사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운문 작품 향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향가 연구 및 향가를 포함하는 산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자는 향가에 그 어떤 공통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이 세계관은 신화적이지도 시적인 성격을 띠며, 이 세계관 속에 구현되어 있는 세계에 대한 관념 체계는 우주의 질서를 재현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 I. 니끼찌나는 문장들의 심오한 의미를 파헤치면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특이한 관념 체계를

27) M. I. 니끼찌나. 1982. 『의식과 신화와의 연계 속에서 본 한국 고대 시가』. 모스크바.

규명해 내는데, 임시로 이에 “형상 체계”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나아가 이 저서에서는 “연장자의 형상”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식(儀式)이 공개된다. 연장자의 형상이란 사회와 우주와 동일시되는 존재로 이해된다. 의식은 어떤 경우에는 샤머니즘 의식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다른 어떤 경우에는 태양신 숭배 의식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태양신 숭배 의식의 기저에는 세오녀 신화, 해모수와 자연계의 두 주인에 관한 신화가 놓여 있다.

M. I. 니끼찌나는 한국어로 된 전통 한국 시가 장르 중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장르인 시조에 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저서²⁸⁾에서 구조 분석이라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저서에서는 시조에 반영되어 있는 세계관이 고찰된다. 이 저서의 기저에 놓인 것은 16~19세기 시가 전집 필사본이다. 저자는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 시조에서 세상의 기본적 요소들을 분별해 내고 그것들 사이의 연계를 밝혀냄으로써 시조 내의 공간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안에 두 가지 타입의 시간에 관한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낸다. 순수 한국어 단어들과 한자어들로써 각각 의미되는 기본적 시적 형상들이 갖는 특징을 대조함으로써, 대비되는 단어들은 상호 교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즉 동의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이 저서에서는, 시조에 나타난 세계관의 성격도 시에서 쓰이는 비유의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점에서 그 이전의 시가 전통(6~10세기의 향가)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A. F. 프로제비치의 저서 『한국 중세 장편 소설』²⁹⁾은 한국 전통 산문의 주요 장르들에 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네 번째 저작이다. 장편 소설의 특징이 문화의 관념 규명을 통해 고찰된다. 이 저서를 통해서, 한국 장편 소설 속에서는 개인이 조화를 이루는 문제

28) M. I. 니끼찌나. 1994. 『16~19세기 시조 장르 한국 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29) A. F. 프로제비치. 1986. 한국 중세 장편 소설. 김만중 의 『구운몽』. 모스크바.

가 논의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길이 제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중 하나는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길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회 생활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향한 길이다. 한국 최초의 장편 소설들의 저자는 김 만중(1637~1692)으로서, 사회 소설인 『사씨남정기』(한글로 기록되었음)와 꿈 묘사 소설인 『구운몽』(한문으로 기록되었음)의 두 작품을 지었다. 본 저서에서는 먼저 소설 『구운몽』이 연구된다. 이 소설에서는 세 가지의 주된 문화적 요소가 분별된다. 첫 번째 것은 작가의 종교적, 철학적 세계관과 연관된다 (불교적 득도의 길이 묘사된다). 두 번째 것은 신화적 요소로서 소재 설정의 기반에 놓이며, 태양신의 죽음과 출생에 관한 신화와 관련된다. 세 번째 것은 “중국 고전 세계”로써 대표되는 문학적 가치 체계이다. 이 세 요소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이 세 요소가 조화롭게 엮여 『구운몽』이라고 하는 독특한 예술 작품을 탄생시킨다. 본 학술서의 저자는, 이 소설을 나중에 가서 한국어로 간략하게 줄여서 번역하여 보급함으로써 이 철학 작품이 광범위한 독자층의 “흥미를 끄는 입을 거리”로 변화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다음 단계로, 번역 문학의 영역이 넓어져 간다. 역사서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던 전설과 신화를 번역한 것이 선집으로 나온다 (M. I. 니끼찌나, L. V. 쥐다노바, L. R. 폰체비치, M. N. 박, A. F. 프로제비치 역).³⁰⁾ 한국 소설들이 한문에서 번역되거나 (『구운몽』)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된다 (『창선감의록』(『인현왕후전』(G.E. 라치꼬브 역); 『창선감의록』(D.D. 옐리제예브 역); 김만중 편, 『구운몽』(A. F. 프로제비치 역)).³¹⁾ 또한 『옥루몽』(G.E. 라치꼬브 역)³²⁾ 그리고 18세기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박지원의 작

30) 『한국의 전설과 신화』, 1980. 중세 서적에서 발췌. 모스크바.

31) 『창선감의록』, 1985. 레닌그라드.

32) 『옥루몽』, 1982. 모스크바.

품들³³⁾이 번역된다. 같은 시기에 동문 시 부문과 관련된 『동문 문예작품집』에서 M. I. 니끼찌나와 N. 말체바 시인이 번역한 윤선도의 시집이 발간되었다(『어부사시가』, 『산중신곡』, 『산중속신곡』, 1987).

글을 연구하기 위한 문화학적 접근 방법이 A. F. 프로제비치가 최근에 집필한 2편의 저서들의 특징이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적성의전 권지단』³⁴⁾이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이 소설이 두 왕자, 즉 선우(善友)와 악우(惡友)에 대한 불교 경전의 내용을 소재로 하여 쓰였다고 밝힌다. 이 경전은 “선한 일에 보응하는 대방편(大方便)의 부처”를 말하는 불경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저작에서는 타국의 소재가 한국 문화에 토착화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저자는, 경전이 한국 전통 소설에 의해 개발된 사건 전개 법칙 및 주인공 행동 양식에 부응하도록 개작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두 번째 저서인 『한국의 신화와 주제 소설』³⁵⁾은 한국 주제 소설의 특징이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 저서는 한국에 존재했던 왕국들을 수립한 자들에 대한 전설, 불교 신화, 전통 소설, 20세기 초의 “신소설”을 자료로 하여 쓰였다. 이 책은 총 2부로 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글이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작품 주인공들을 신화적 사건에의 참여자들로 보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주인공들의 상호 관계는 혼돈 상태에서부터 우주의 조화로 이행(移行)해 간다. 그러한 이행은 선(善)의 원리(原理)를 대표하는 자가 악의 힘과 싸워 이김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두 주인공이 혼인을 하여 어린아이가 태어남

33) 『화사』, 1991. 한국 고전 산문. 레닌그라드.

34) A. F. 프로제비치, 『적성의전 권지단』, 1996. 러시아 학술 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그 지부 한국목판본 중에서. 목판 사본 / 한국어 번역. 머리말, 주해. 부록. 색인. 상트페테르부르그.

35) A. F. 프로제비치, 1996. 『한국의 신화와 주제 소설』, 상트페테르부르그.

으로써이다. 두 원리의 조화로운 결합은 비극적 종말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제2부에서는 유형 분류의 옛 형태들, 그 중 무엇보다도 신화의 주인공들과 연관된 색깔의 상징성 연구가 이루어진다. 전통 한국 문학에서는 색깔이 자연의 생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1998년, L. V. 쥐다노바의 저서 『최치원의 운문 작품 세계』가 발행되었다. 이 저서에서는 이 시인의 시구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비유 체계에 대한 분석과, 비유 체계가 중국 시가 전통과 갖는 연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최치원의 운문에 있는 전통적 시적 형상들의 독특한 해석이 면밀히 고찰되었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독특한 해석은 한국의 신화적, 시적 전통과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의 중심에 놓인 것은 본 작가의 작품집인 『계원필경』과 15세기 명시 선집 『동문선』에 포함된 시들이다. 이에 있어 두 부류의 시들이 특히 분별되었는데, 이는 “풍월예찬”과 “대구법이 쓰인 칠언절구 고시”이다. 또한 L. V. 쥐다노바의 저서에서는 “부록”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데, 여기에는 이 시인의 운문 및 산문의 번역이 실려 있고, 연구된 두 부류의 시들에 쓰인 단어를 풀이해 주는 부분이 덧붙여져 있다.

Ⅲ. 맺음말

단행본의 문집에 실린 번역 작품들에는 모두 머리말과 자세한 주해가 곁들어진다. 소련 시대에 한국 전통 문학 번역 작품들은 국립 예술 문학 출판사와 ‘나우까’ 출판사라는 두 출판사에 의해 발행되었다. 번역 작품들의 발행 부수는 많아, 3만~5만 부에 이르렀

지만, 보통 이 작품들은 순식간에 매진되곤 했다. 이 사실은 러시아 독자들이 한국 문학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기빠리온’ 출판사가 ‘한국 문학의 금자탑’이라는 명칭으로 극동의 산문 및 운문 번역 작품들을 속속 발행할 예정이다. 전통 문학을 구성하는 주요 작품들, 또한 대한민국 최고 유명 작가들의 현대 산문 및 운문의 발행이 계획되고 있다.

러시아 독자들이 한국 문학을 처음 접한 지 50년 이상이 지났다. 그들로 하여금 처음 한국 문학을 접하게 한 것은 전통 소설 번역 작품집이었다. 그 첫 발행 후 고전 산문 및 운문의 번역 작품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현재는 그러한 출판물들이 희귀 서적들이 되어, 러시아 독자들의 신세대는 그러한 출판물들을 알지 못한다.

현대 한국 시인들 및 소설가들의 작품을 번역한 책들이 러시아 책 시장에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한편 현대 문학 작품들은 전통 문학 작품들과는 달리 독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렇듯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작품 선정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점, 그리고 번역 자체의 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한다(비평가들에 의해 이 점이 몇 번씩이나 지적되었다). 또한 출판물들의 표지 디자인 역시 별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한국 문학에 대하여, 또한 상기 출판사가 근간을 계획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말할 수 있겠다. 한국 문학은 고대 동방 문화의 총체를 구성하는 요소였으므로, 한국 문학에서는 중국 및 일본 작품들의 특징이기도 한, 그와 공통되는 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한국적인 세계관, 그리고 세상에서 인간이 점하는 위치에 대한 순수하게 한국적인 관념이 드러나 있다는 점을 두고 볼 때 한국 문학은 극동의 이웃 국가들이 지니는 문학과는 전혀 닮지 않은 독특한 현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전통 운문 및 산문은 그 스스로의 장르 체계를 구성

하였는데, 이 장르들의 명칭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러시아 문학에서 유사한 장르들을 찾으려 해도, 그에 해당함직한 것을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이 장르들의 명칭을 한국어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러시아어로 표기하는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산문 문학에서 단신(短信)들, 짧은 이야기들이 특수한 장르로 분별되어 있는데, 이는 패설이라는 명칭을 갖는다. ‘한국 문학의 금자탑’ 시리즈의 첫 출판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여우재[狐嶺]』라는 명칭의 전통 산문 문집이다. 이는 옛날 관리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즐겼던, 재미있는 사건들에 대한 해학적인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그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패설이라는 장르이다).

운문 분야에서 현재 특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은, 3행으로 된 짧은 시라고 할 수 있는 시조이며, 또한 행이 많고 묘사적 성격을 지니며 서사시를 연상케 하는 시문학 장르인 가사이다. 시조 및 가사 장르에 속하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번역한 책이 발행됨으로써 독자들에게 전통 운문을 소개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규보의 산문과 운문을 모은 문집의 발행이 계획되고 있다.

한국 전통 산문에서는 갈등이 비극적으로 해결되는 법이 전혀 없다. 작품들 속에서 사건은 언제나 혼란 상태로부터 조화 상태(해피엔드)로 발전해 간다. 그러나 이 양극의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는 주인공들의 기이한 모험에 대한 묘사로 가득하다. 바로 그러한 묘사가 장편 소설들 및 중편 소설들의 사건 전개에 묘미를 가져다 준다. 주제가 뚜렷한 전통 산문의 예로서, 17세기의 가장 유명한 장편 소설 두 편, 즉 『구운몽』과 『사씨남정기』가, 또한 19세기 중편 소설들이 선집의 형태로 소개될 예정인데, 이 선집에 실리는 작품들을 대표하는 명칭으로서 『춘향전』이라는 명칭이 쓰일 것이다.

번역을 함께 실은 『효경언해』(번역: S. O. 꾸르바노브)와 『해동고승전』(번역: J. V. 볼파치)이 금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 N. G. 가린 미하일로브스끼. 1950. 『세계 일주 여행 일지에서 뽑은 글』. 모스크바.
- 김시습. 『금오신화』. 1973. 모스크바.
- 『극동의 고전 산문』. 1975. 모스크바. 인도,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의 고전 시가. 모스크바.
- 『옥루몽』. 1982. 모스크바.
- D. D. 엘리제예브. 1960. 『백련초해: 한국어 번역이 첨부된 서정시 선집 / 원문 발행, 번역, 머리말』. 모스크바.
- D. D. 엘리제예브. 『한국 중세 패설 문학(기원 및 장르와 관련된 문제들)』. 1968. 모스크바.
- D. D. 엘리제예브. 『최충전 / 한글 필사본, 번역, 머리말, 주해』. 1971. 모스크바.
- D. D. 엘리제예브. 『임장군전 / 목판 사본 / 원문 발행, 한국어 번역, 머리말, 주해』. 1975. 모스크바. M. I. 니끼찌나와 A. F. 드로제비치에 의해 출간된 장편 소설.
- D. D. 엘리제예브. 『한국 중세 단편 소설(장르의 진화)』. 1977. 모스크바.
- D. D. 엘리제예브. 『한국 중세 단편 소설(장르의 진화)』. 1979. 어문학 박사(doctor of science) 학위 청구 논문 요약서. 모스크바.
- 『눈 속의 대』. 1978. 8~19세기 한국 서정시. 모스크바.
- M. I. 니끼찌나, A. F. 드로제비치. 1968. 『중세 한국 문학의 시대 구분』. 모스크바.
- M. I. 니끼찌나, A. F. 드로제비치. 『14세기 이전 한국 문학 역사 개관』. 1969. 모스크바.
- M. I. 니끼찌나, A. F. 드로제비치. 『쌍천기봉 / 원문 발행, 번역, 머리말』. 1962. 모스크바. A. F. 드로제비치가 발표한 중편 소설.

- M. I. 니끼찌나. 1981. “의식(儀式)과 신화와의 연계 속에서 본 한국 고대 시가” 어문학 박사(doctor of science) 학위 청구 논문 요약서. 레닌그라드.
- M. I. 니끼찌나. 『의식과 신화와의 연계 속에서 본 한국 고대 시가』. 1982. 모스크바.
- M. I. 니끼찌나. 『16~19세기 시조 장르 한국 시가』. 1994. 상트페테르부르크.
- A. F. 프로제비치. 1968. 『춘향전 권지단 / 목판 사본. 번역. 머리말. 주해』. 모스크바.
- A. F. 프로제비치. 1975. 『한국 중세 중편 소설』. 모스크바.
- A. F. 프로제비치. 1983. “한국 중세 장편 소설”. 어문학 박사(doctor of science) 학위 청구 논문 요약서. 레닌그라드.
- A. F. 프로제비치. 1986. 한국 중세 장편 소설. 김만중 의 『구운몽』. 모스크바.
- A. F. 프로제비치. 1996a. 『한국의 신화와 주제 소설』. 상트페테르부르크.
- A. F. 프로제비치. 1996b. 『적성의전 권지단』. 러시아 학술 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 한국목판본 중에서. 목판 사본 / 한국어 번역, 머리말, 주해, 부록, 색인: 상트페테르부르크.
- 박인로. 1962. 『오색의 구름』. 알마아타. (M. I. 니끼찌나, L. R. 폰제비치, A. G. 조브티스 시인 역). 『세계문학사』. 1984~1988. 모스크바. 제2~5권.
- 『자라국: 15~17세기 한국 단편 소설』. 1970. 레닌그라드.
- 정철. 1975. 『외로운 학』. 모스크바.
- L. V. 쥐다노바. 1983. 「최치원 의 시문학(9세기)」. 어문학 박사(candidate of science) 학위 청구 논문 요약서. 레닌그라드.
- 『창선감의록』. 1985. 레닌그라드.
- 『춘향전』. 1960. 중세 중편소설집. 모스크바.

- 『한국에 대한 기록』. 1900. 상트페테르부르크. 제2부.
『한국 중편소설 선집』. 1954. 모스크바.
『한국 고전시가 선집』. 1956. 모스크바.
『한국의 문학: 1945~1978년에 러시아어로 출판된 번역본과 비평
서 목록』. 제1판. 모스크바.
『한국의 전설과 신화』. 1980. 모스크바.
『회사』 한국 고전 산문. 1991. 레닌그라드.

(2007.10.30 접수; 2007.11.30 채택)

최인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한국문학을 전공하여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 09. 01-2006. 08. 31. 학술진흥재단 지원 project <재외한인 문학연구 CIS, 일본 중국 지역 한인문학을 중심으로>에서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07.03.01-2008.02.28.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있다.

2002.11.23-11.25.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참가 (KIN), 2002.7.1-7.4. 제2차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참가 (한국여성개발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E-mail: inna007@hanmail.net

suggest two things; the first, housing policy which is focusing mainly on demand and supply of houses is not the only right answer. The second, traditional value should be considered and will help to build socio-cultural foundation for solving the housing problem.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 in Russia - The History of Translations into Russian -

Choi, In-Na(Saint-Petersburg National University, Russia)

Key words : translations of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 translations of novel, translations of Korean poetry, Russian translation, translations of foreign countries .

In this abstract I intend to give a brief outline of Russian translations of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 Russian translations of Korean traditional style literature began to appear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prerequisite for the work of the translators was provided for by the past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 the Russia. In the late 1940's and the beginning of the 1950's these studies were centered, in the first place, in Leningrad University owing to the fact that one of the chairs at the Oriental Faculty of this University was

occupied by the late professor A. Kholodovich, a well-known linguist and specialist in Japanese and Korean. It is from his circle of students that most of the translators have come (Lim Su, G. Vasiliev, D. Eliseev, G. Rachkov, M. Nikitina and A. Trotsevich).

In Russia Korean studies in the field of traditional literature from the beginning of its history till the present days have been divided into two great parts (directions) researching activity and popularization of the most outstanding Korean literary pieces. The first one is writing thesis, publications of articles and monographs, and presenting papers on the inter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the other is writing articles for the encyclopedias, translations of the Korean traditional and modern fiction and writing prefaces to the translations.

The choice of texts and materials for translation is influenced by a concept of special value of this or that literary work within the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Also it depends on the historical period chosen for the researching and growth of knowledge base of the Korean literature in Russia. Therefore, in prose popular fiction written in Korean vernacular and in poetry sijo (시조) were chosen at first for translation.

In Russia translations of the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are subdivided into three classes: short stories (패설), stories (전) and novels (고전소설). During this period several collections of stories (in Russian - 'povest') have been published. The first of them appeared in 1954. It was translations of three stories: "The Story of Ch'unhyang" (춘향전), "The Story of Hong Kiltong" (홍길동전) and "The Story of the Cock Pheasant" (장

끼전). Then the Leningrad translators published “The Story of Sim Ch’ong” (심청전), “The Story of Hungbu” (홍부전) and “The Story of Sukhyang” (숙향전) - about fifteen stories. In 1959 D. Eliseev translated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in Russian - ‘novella’) from the Aston collection of manuscripts (English koreanologist W.G. Aston used these short stories as textbooks for reading the Korean colloquial language).

And finally, translations of four novels (in Russian - ‘roman’) were published - “Record of the Lady Sa’s Journey to the South” (사씨남정기) (published in 1960), “The Nine Cloud Dream” (구운몽) (1961), “The Dream in the Jade Pavillion” (옥루몽) (1982) and “Records of the Shown Virtue and of the Aroused Sense of Duty” (창선감의록) (1985).

Translations of Korean poetry were represented at first by sijo. Five collections of poetry were published - translations of sijo, gasa (가사), koryo gayo (고려가요) and hyangga (향가). The first collection, compiled by A. Kholodovich, was published in 1956 and the poet who worked at this Korean poetry was A. Ahmatova. Then, in the 1960’s-1970’s, four collections of Korean poetry in translations were published. Two of them, compiled by M. Nikitina, L. Kontsevich and poet A. Zhovtis, present poetry of 박인로 (1960) and 정철 (1975); in 1985 translations of 윤선도’s poetry (“Four Seasons of the Fisherman” (어부사시가), “New Songs in the Mountains” (산중신곡), “Go on with New Songs in the Mountains” (산중속신곡) were compiled by M. Nikitina.

In the late 1960’s Russian koreanologists began to publish translations from hanmun. These translations were published in

three works: in 1972 Kim Sisup's short stories ("New Stories composed on the Mountain Kumo" 금오신화), translated by Moscow sinologists D. Voskresensky and V. Sorokin; collected stories: "History of Flowers" (화사) and "The Story of the Town of Sadness" (수성지) of Lim Che and some pieces of ph'aesol'(translators: G. Rachkov, D. Eliseev and A. Trotsevich). Some pieces of hanmun prose and poetry were published in the series "The Classical Prose of the Orient"(1975) and "The Classical Poetry of the Orient" (1977). Then, in 1985 A. Trotsevich translated a hanmun text of 구운몽. Recently a historical book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삼국사기) has been translated by a group of Russian koreanologists leading by Moscow professor M. Park and L. Kontsevich. It is imported to note that all these translations are followed by commentaries and prefaces.

There were two national publishing Houses at first, which published translations from Korean. One of them is the "Science" Publishing House, another The National Publishing House of the Arts. Nowadays there are several private Publishing Houses that publish translations of Oriental literature, particularly, Korean literary works. It is worth to say, that Russian works of translations were in large editions about thirty or fifty thousand copies.

Nowadays one of the Publishing Houses in Saint-Petersburg named "Giperion", intends to publish a new series of Korean prose and poetry translations under the title "The Gold Collection of the Korean Literature". It is planned to publish the best literary works of the traditional and modern Korean

prose and poetry. As to the traditional literature, there will be translations that have been done but need to be redone (패설, 전기, 고전소설, 시조, 가사) and also important works that have not yet been translated.

What is to Consider when Translating Korean Vernacular Poetry into a Foreign Language -Based on the Example of Translating the “Namhun Taepyeong-ga” Anthology into Russian-

Anastasia A. Guryeva
(Staff lecturer at the University of Saint Petersburg)

Key words : “Namhun Taepyeong-ga” poetry collection, Chong Hyon-Jong, Korean vernacular poetry translation, borrowed images, compositional and literary modes.

The paper aims at examining some features to consider while working on Korean vernacular poetry translation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with the 110 year tradition of Korean studies in Russia. The examples will be set from the “Namhun Taepyeong-ga” 南薰太平歌 (“Songs of the Great Peace at South Wind”) poetical anthology (1863) by an unknown compiler.